



‘청혼’(1989)

〈서울미술관 제공〉



드로잉 작품 ‘여인’(1967)

〈서울미술관 제공〉

천경자 추모... 서울 지역 전시회 관람객 발길 줄 있는데

광주시립미술관 소장 작품 볼 수 없나

고흥 출신 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을 전시하는 서울 지역 미술관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그의 작품을 소장중인 광주시립미술관에서도 그림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9년 광주문예회관 옛 광주시립미술관 자리에 천경자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기도 했던 광주시립미술관은 현재 천 화백의 드로잉 작품 20점을 소장중이다.

시립미술관은 2009년 4월 작품 10점을 구입하고 그해 9월 10점을 기증 받았다. 작품은 천 화백에게 직접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큰딸 이혜선씨가 대리인으로 나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작은 식물과 동물이 소재로 등장하는 것으로, 가로·세로 35×27cm, 35×25cm, 61×51cm 등 다양한 크기다.

일단 미술관은 이 드로잉 작품을 당장 전시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준비를 갖춘 다음 제대로 된 전시를 연다는 입장이다.

조진호 관장은 “드로잉 작품만으로 한국 미술계의 큰 거목을 조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좀 더 작품을 확보해 규모 있는 전시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천 화백의 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만이라도 관람하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체계적인 준비 기간을 거쳐 대규모 기획전을 여는 것도 좋지만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작품들을 모아 규모 있는 전시회를 여는 데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수장고에 있는 작품을 먼저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다.

구입·기증 받은 20점 소장

“드로잉으로 대가 조명 한계”

서울미술관은 전시 앞당겨

서울시립미술관 상설 전시회

별세 이후 관람객 3배 늘어

현재 미술관측은 해당 작품 이미지 공개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작품의 재산권은 미술관에 있지만 저작권은 유족에게 있어 유족의 동의를 받기 전까진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 지역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천 화백 관련 전시에는 별세 소식이 알려진 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종로 부암동에 위치한 서울미술관은 하반기 기획전 ‘美人 미인 : 아름다운 사람’전을 열고 있다. 당초 전시 정식 오픈 날짜는 27일이었지만 지난 22일 천 화백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문의가 잇따라 23일부터 프리오픈을 진행 중이다.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인물화 8점으로 미술관 자체 소장작품과 개인 소장작품이다.

전시는 피카소, 샤갈 등 ‘미인’을 표현한 동서양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인지를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작 중 1974년작 ‘고(孤)’는 외로움과 고독

에 싸인 한 여인의 침묵을 담아낸 작품이다. 머리에 화려한 꽃 장식을 한 여인의 입가에 맺힌 희미한 미소와 고독함을 잊고자 애써 웃음 짓는 작가의 마음이 읽힌다.

천 화백이 자신의 초상화로 생각했다는 1989년작 ‘청혼’에는 아름답게 치장했지만, 내면에는 고독과 슬픔을 간직한 것처럼 보이는 여인의 모습이 보인다.

천 화백 작품 중 2009년에 12억원이라는 최고가로 낙찰된 작품 ‘초원 II’(1978)도 함께 선보인다. 현재 추정가는 22억원이라는 게 서울미술관의 설명이다.

1967년 월간 ‘주부생활’ 4월호에 기고했던 드로잉 ‘여인’도 공개됐다.

천 화백의 작품을 상설전시하고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에도 관람객과 추모객들이 부쩍 늘었다. 천 화백은 인물화, 풍물화 등 93점을 1998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하고 뉴욕으로 떠났었다.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를 주제로 열리는 상설전에서는 ‘생태’, ‘내 슬픈 전설의 22 페이지’ 등 30점이 전시중이다.

천 화백의 별세소식이 보도된 지난 22일 하루 관람객 677명에서 23일 1000명을 넘었고 24일에는 1700여명으로 급증하는 등 4일간 관람객이 5000명을 넘었다.

그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기 전 일일 평균 관람객은 440명 정도에 그쳤으나, 최근 1300여명으로 3배를 웃돌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관람객이 현화하고 추모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전시장 안에 마련했다. /김용희기자 kimyh@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100회 공연

내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최원록



남상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지난 1994년 9월 1일 창단됐다. 김광복 초대 지휘자의 지휘로 창단 공연을 가진 게 그해 10월 23일이었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100회 공연을 준비했다. 29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특히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 사업인 ‘한국창작 음악제’의 지원을 받아 창작곡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꾸렸다. ‘한국창작 음악제’는 작곡가와 지휘자, 연주자들이 부담 없이 창작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했다.

이번에 무대에 오르는 6곡 중 3곡이 광주 초연곡이며 지휘는 최원록 부지휘자가 맡았다.

‘Autumn Breez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민영지 작곡가의 ‘Odyssey(간여행)’가 공연된다. 지난 2014년 발표된 작품으로 제1교포 3세 작곡가인 민씨가 자신의 인생을 곡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민씨는 이번 공연에서 장구 주자로 참여한다.

신동일씨의 곡 ‘국악관현악을 위한 신포니에타

1번’도 관객을 만난다. 신씨는 2004년 KBS 국악대상 작곡·지휘 부문에 수상했고, 2014년 창작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음악을 담당했다.

또 이날 공연에서 사회를 맡는 인기 소리꾼 남상일씨가 창작 판소리 ‘노총각 거시기전’과 ‘장터령’을 관현악 반주에 맞춰 선보인다.

그밖에 관현악단 단원인 김한아씨가 박범훈의 25년 가야금협주곡 ‘새산조’를 협연하며 박경훈씨의 해금협주 ‘메나리’는 역시 단원인 김민희씨가 함께 연주한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학생 50% 할인. 문의 062-415-540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작가 박일구 개인전

11월 4일까지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여수 항일암

수년간 남도의 바다를 주제로 작업해온 사진작가 박일구의 개인전이 11월 4일까지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열린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여수 거문도, 신안 거제도, 완도 소안도 등 남도 각지에서 바라본 바다의 풍경을 기록한 사진 약 20점을 선보인다.

박씨는 대기원근법(공기나 빛의 작용 때문에 생기는 색채 및 윤곽의 변화로 거리감을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해 바다를 사실적으로 포착했다. 새벽녘 바라본 안개 낀 바다처럼 잔잔하고 서정적 느낌을 풍긴다. 그는 남해바다 고유의 색과 풍경을 살리며 그 속에 녹아 있는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이남 감독은 “박일구는 사진이 가진 건조함을 뛰어넘어 특유의 추상적 표현을 작품에 담았다”고 평했다.

박씨는 광주대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미술협회 미디어분과 이사 등을 역임했다. 문의 062-383-07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신창동 유적지 국내 첫 벼 재배 밭 발굴

국내 최초로 광주 신창동 유적지에서 철기시대 벼를 재배했던 밭이 발굴됐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신창동 유적 16차 발굴조사 결과 저습지(低濕地·땅이 낮고 축축한 곳)와 동일한 시기(초기 철기시대)에 조성된 경작 유구(遺構·구조물과 조형의 흔적·사진)가 발굴됐다.

밭베를 재배했던 밭으로 추정되는 유구(사진)는 완만한 경사를 유지한 구릉 하단부에 자리하고 있다. 고랑과 이랑이 10홀로 구성된 밭이 뚜렷히 남아 있다. 이번 발굴의 의의는 초기 철기시대 농업 경작 형태·단위·규모·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굴된 경작 유구는 청동기 시대와 삼국~조선시대에 개간된 사례가 대부분으로, 초기 철기시대 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



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 가마, 저습지 등 초기 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형성된 생활유적과 분묘가 어우러진 대규모 농경 복합 유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라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

★★★★★

악독한 노예상인에서 회심하여
불멸의 찬송 'Amazing Grace'를 만든 성직자가 되기까지
인간구원의 감동드라마를 그린 영화 <프리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희망

프리덤

FREEDOM

아카데미상상식 남우조연상 <셀마>제러 맥과이어 | 쿠바 구딩 주니어 | <쇼뱅크 탈출> 윌리엄 새들러
사론 릴 데이빗 라쉬 베르나르도 포처 | 피터 쿠센스 감독 [CBS시네마의 첫 번째 수입 작품]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 'Amazing Grace'의 주인공인
<존 뉴턴> 목사의 감동실화!

11월 19일 CGV 독점 개봉

NAVER 프리덤